

선진국 통상압력 대폭강화

미국-EU, 보호주의 강화 --- 개도국도 산업보호 강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세계경기 하강에 대비해 관련기업의 수입규제 요구를 묵인하는 한편 대외 통상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에 통상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이 속속 입성,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움직임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1월3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신입위원으로 임명한 데니스 드베니 변호사가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로 철강 반덤핑 규제 선봉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는 반면 반덤핑 제소 등의 심의에 있어 철강업계와 노조의 입장을 옹호, ITC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U는 2001년 들어 주요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서 EU수출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EU 회원국들은 2001년에도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의 배기량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새롭게 규제할 방침이다. 냉장고와 세탁기의 에코라벨(EU 환경마크)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환경규제 문제는 EU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내기업들은 EU의 환경규제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 장벽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2000년 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2001년 선진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47건으로 1999년과 변동이 없는 반면, 개도국은 39건으로 1999년의 29건보다 10건 늘어나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총 86건을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2001년에도 인디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경기가 불투명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수출-내수 전망(2001)

구 분	수 출		국내수요	
	전 망	증감률	전 망	증감률
전 차	860억달러	20.6%	76조원	16.4%
반도체	290억달러	10.7%		
건 설*	60조8000억원	2.9%	70억달러	25.0%
정 유	35억3000만배럴	0.9%	76억배럴	2.2%
석유/화학	643만톤	-0.7%	993만톤	3.3%
섬 유	145만톤	4.4%	242만톤	15.8%
자동차	170만대	1.8%	138만대	-3.5%
철 강	1424만톤	-0.5%	3797만톤	-3.4%

* 공사계약액 및 수주액

<Chemical Daily News 2001/07/31>